

순국선열 위한 천도재 잇따라

신광사·백련사, 보훈청과 6년째 법회

화엄사·한마음선원광주지원·전북불교법사회도

한국전쟁 56주년을 맞아 호남지역 사암에서 전쟁으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신광사(주지 경주)와 강진 백련사(주지 법상)는 지난 2001년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송계숙)과 자매결연을 맺고 6년째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 천도재를 열고 있다. 신광사는 금년에 6월 22일 보훈가족과 불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 340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 의식을 봉행했다.

열이 있기에 우리의 우리가 있다"며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영산회 소속 스님들이 호국영령을 위한 신중작법과 천수바라 등 천도예식을 펼쳤다. 천도재에 참석한 전불교경 미망인회 임연자 광주 지부장은 "나라를 위해 먼저가신 남편을 위해 매년 천도재를 마련해 주는 신광사 대중들에게 감사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 신광사와 강진 백련사는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6년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은 6월 22일 신광사에서 열린 천도재 모습.

이날 천도재에서 한담 스님(정토사 회주)은 법어를 통해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 일제강점기에 이악을 주는 보살이 되자"고 설했다.

송계숙 광주 보훈청장도 인사말에서 "조국을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바친 순국 선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6월 25일 대웅전에서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에서 산화한 호국영령과 이념갈등으로 희생된 민간인을 위한 천도재를 가졌다. 이날 천도재에는 부산 법등회(회장 자명심) 회원 12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도 6

월 25일 천도재를 갖고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재가신행단체로는 전북불교전법사회 경전독송회(회장 태기준)가 6월 13일 지방재정을 맞아 전주 군경묘지에서 호국영령들을 위한 특별 독송법회를 봉행했다.

강진 백련사는 12일 광주지방 보훈청과 합동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를 가졌다. 광주지방 보훈청과 지역사암이 마련한 천도재는 호국영령 104위로 시작해 현재 340위로 늘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진감국사 범패 맥 잇다'

일광사 범패작법 전북민속경연대회서 우수상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의 범패 작법이 6월 16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전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일광사 범패작법은 25명의 범패 이수자 스님과 신도들이 참가해 신중작법-천수바라-도량찬 등의 불교전통의식을 선보였다(사진).

일광사 작법을 지도한 승천 스님은 "정읍은 범패의 시조인 진감국사가 창세사에 주석하면서 고창인 금마에 오가는 길목으

로 진감국사의 범패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랜역사의 불교전통의식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일광사에서 처음 출현한 '범패작법'은 역사와 규모에 있어 불교계를 대표하는 작법이다"며 "일반민에게 불교의식을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에서 익산 돌문화보존회는 원석을 채취-운반-가공해 탑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돌다루기 놀이'를 재현했다.

이준엽 기자

"애들아 나들이 가자"

육전 청성초등생 80명 대전중앙과학관 견학

내륙의 오지 육전군 청성면 청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대전 나들이에 나선다.

청성초등학교 전교생 어린이 80여명은 7월 6일 국립대전중앙과학관을 견학한다. 충북도청과 육전군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분사 대전·충북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견학은 육전군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006 종교단체 자원봉사 릴레이'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어린이들은 오전 9시 대형버스 2대를 이용해 육전 대성사를 방문한 뒤, 대전중앙과학관으로 이동해 견학과 어린이영화를 상영하게 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예산 일체를 후원하는 육전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낙후된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불교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제주 경찰불자 연합법회

제주지방경찰청 불교회와 경승단 경승협의회는 6월 17일 제주 삼광사에서 첫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경승 원조, 현명, 재음 스님을 비롯해 경찰청 불교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경승실장 도중 스님(월라사 주지)은 "급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수행을 완성할 수 없다"면서 "기도나 참선, 경전 독송 등 하나라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오영기 경찰청 불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안을 핑계 삼아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며 "앞으로 경찰청 자들은 민생 현장 곳곳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경찰불교의 위상을 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bs.co.kr

섬 속에 절이 있네

압해도 금산사



연륙교 완공을 앞두고 지역불교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압해도 금산사.

수려한 경관 간직한 주민 쉼터

다도해 첫 가람... '향기나는 도량 가꾸기' 목표

신안군은 우리나라 섬의 1/4에 달하는 827개의 섬으로 이뤄졌다. 수많은 섬의 첫 관문은 목포와 바다에 떠있는 압해도(押海島).

아직까지는 사면이 바다인 섬이지만 내년 완공 목표로 연륙교가 건설 중이어서 머지않아 육지의 꿈을 안고 있다. 더구나 신안군청이 들어서면 압해는 행정, 관광, 물류 중심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희망의 섬이기도 하다.

불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1500여년 전에 사람이 들어섰다. 가룡면에 자리한 금산사(金山寺, 전통사찰 50호)이다.

창건은 599년 백제 법왕의 자부사찰로 세워졌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일진왜란 이전의 기록이 모두 소실되고 옛 가람마저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해오는 이야기와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근거한 천년고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창건 이후 금산사는 진표 율사가 762년부터 766년까지 4년에 걸쳐 중건했으며, 1069(문종 23) 혜덕 왕사가 남쪽에 광교원이라는 대사구를 증설하여 창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가람이 되었다.

오늘의 금산사는 1904년에 배후주거사가 산수 좋고 경치 수려한 이곳에 왔다가 불심을 펴겠다는 발원과 함께 건립했다. 임주문을 거쳐 잘 꾸여진 진입로를 따라 오르면 대웅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등의 전각을 만난다. 섬에 자리한 가람들이 대부분 사세가

약해 왜소하건만 금산사는 나름대로 사격을 갖추고 있다.

근래들어 금산사는 10여년 전, 주지선지 스님이 주석하면서 역사가 바뀌고 있다. 스님은 단절된 지역민과의 교류를 위해 매년 봄, 가을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때로는 물리치료사를 초빙해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한다.

얼마전에는 압해도에 조계종에서 위탁운영하는 신안노인요양원이 들어 서면서 지역불교 위상도 커지고 있다. 자원봉사자 요양원을 방문한 이들이 금산사를 참배하면서 '섬 속의 편안한 절'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스님은 "연륙교가 개통되면 금산사가 서해안 고속도로 끝자락이 될 것이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와 가람을 구상하고 있다.

야생화와 허브를 재배해 국내 유일의 '향기나는 도량'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도량정비 계획에 따라 가람 정비에 들어갔다. 첫 사업으로 대웅전 불사를 복고하고 있다. 혜덕 왕사 중창 이래 천년만에 압해도에서 대대적인 불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향기나는 템플스테이'가 서서히 현실화 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참가하기: 목포 북에서 압해도행 철부선 이용(10분소요), 오전 6시2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수시운영.
금산사: 주지 선지 스님 061-271-0087
전남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 산 22-2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5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고계대덕스님 및 교수님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9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최봉수(동국대학교수)	주명철(동국대학교수)
	불교성당론	최종석(금강대학교수)	박 중(동산불교대학교수)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김상현(동국대학교수)	묘주스님(동국대학교수)	정병조(동국대학교수)
	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차차석(동국대학교수)	김상영(승가대학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명규반·주진반·홍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강제문화학과(30명)	·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 [불교학과] 2006년 6월 15일~ 2006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명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강제문화학과)	· 통산반은 지방거주자 출석수강이 어려움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6년 8월 5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불교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강제문화학과 : 2006년 9월 5, 6, 7일 개강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구로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이서점 051)865-4383 · 대구 : 상영불교서점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센터 064)743-4184
· 특전서장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 불교 여름 대 설법회 -

불교(佛敎)란 무엇인가?

(What is The Buddha Teaching?)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 어언 1700여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갖고도 정법불교, 생활불교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IT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컴퓨터 시대, 과학 시대의 최첨단의 생활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불교도들은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불교의 진면목을 물으면 머뭇거리습니다. 우리들 중생의 갖가지 고(苦)를 가장 적절히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Buddha의 가르침(佛敎)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부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한국불교의 대표교사님들에게 불교에 대하여 여름 대설법회를 들으시라



무진장큰스님, 활안큰스님, 박원일 교수

- 불교 여름 대 설법회 -

일시	설법 주제	법사	장소
2006. 7. 1(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① (불교의 생활화)	박원일 교수 (전 전국신도회장)	서울 동산 불교회관
7. 8(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② (불교의 생활화)	"	
7.15(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의 정토화)	무진장 큰스님 (전 포교위원장)	
7.22(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① (불교의 대중화)	활안 큰스님 (금강선원 총재)	
7.29(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② (불교의 대중화)	"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서울 중구로 수송동 46-20 Tel. (02) 732-1206~8